

*사진 출처 : 안양감리교회

numbers

vol. 357 | 2026.11.10.

군선교 실태

한국 남성 4명 중 1명,
군 복무 중 기독교 세례 받았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고령층 개인파산 실태
2. 요즘 신혼여행 트렌드

넘버즈 칼럼

도박판이 된 일상, 우리는 왜 박수를 치는가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한국 남성 4명 중 1명,
군 복무 중 기독교 세례 받았다!

군대는 청년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선교 현장이다. 이번 〈넘버즈 357호〉에서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의뢰로 국군 병사, 전역자, 군인교회 목회자, 일반교회 담임목사, 남성 성도 대상으로 실시한 군선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선교의 현 위치와 향후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 성인 남성 4명 중 1명(24%)이 군 복무 중 기독교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진중세례를 받은 전역자의 42%가 현재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군인교회 출석 병사 절반 이상(52%)이 입대 전보다 신앙이 깊어졌다고 응답해 군선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리포트가 군선교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군인교회와 지역교회의 실질적인 연계를 통해 전역 후에도 청년들의 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선교 조사

조사개요

구분	국군 병사	전역자	군인교회 목회자	일반교회 조사	
				담임목사 조사	남성 성도 조사
조사 대상	현재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병사	진중세례를 받았거나 군인교회 생활한 20~40대 군필남성	현재 군인교회 시무중인 군종목사/군선교사	일반교회 담임목사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남성 성도
표본 규모	630명	500명	692명 중 총 330명 (응답률 48%)	500명	454명
표본 추출	스노우볼링 샘플링*	편의추출 (Convenience Sampling)	전수 접촉 조사	편의추출 (Convenience Sampling)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조사 방법	모바일 조사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모바일 조사	모바일 조사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6년 8월 28일 ~10월 6일	2026년 8월 25일 ~9월 5일	2026년 8월 28일 ~10월 6일	2026년 8월 3일 ~8월 18일	2026년 8월 3일 ~8월 18일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의뢰 기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조사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영락교회 (담임 김운성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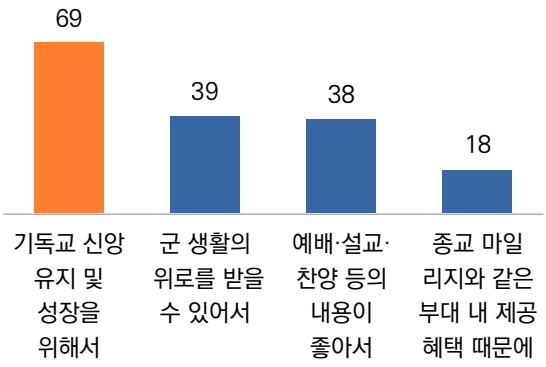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 군인교회에 시무 중인 군종목사 및 군선교사를 통해 설문을 출석 병사들에게 전달하고, 병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응답을 수집하는 방식을 사용.

01 [군인교회와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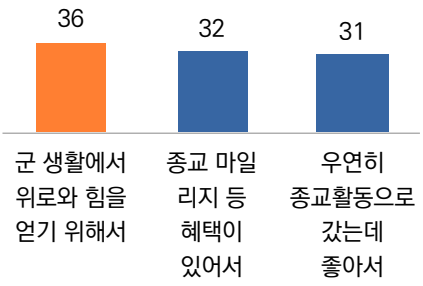
입대 전 비신자의 군인교회 출석 이유, '군생활 위로/혜택!

- 병사들이 군인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는 '신앙 유지와 성장을 위해'(69%)가 압도적 1위였다.
- 반면 입대 전 교회 미출석자들에게는 '군생활의 위로'(36%)와 '종교 마일리지 등 혜택'(32%)이 주요 견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군인교회 출석 이유 (전체 군인교회 출석 병사, N=630, 1+2순위,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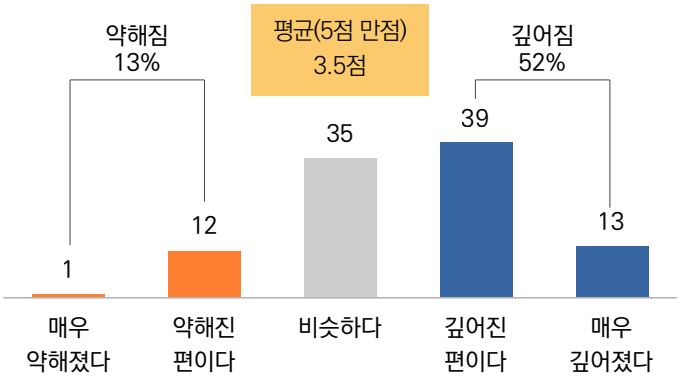
[그림] 군인교회 출석 계기 (입대 전 교회 다니지 않았으나 군대에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병사, N=108, 1+2순위, 상위 3개, %)



군인교회 출석 병사 절반 이상, '입대 전보다 신앙 깊어졌다'!

- 입대 전부터 기독교인이었던 병사들에게 입대 전 대비 현재 자신의 신앙 상태를 물었더니 군인교회 출석 병사 절반 이상(52%)이 '깊어졌다'고 응답했고, '비슷하다' 35%, '약해졌다'는 13%에 그쳤다.
- 군대라는 새로운 집단에 편입된 병사들이 마주한 환경이 '고난'이기에 이것이 입대 전보다 병사들의 신앙을 깊어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입대 전 대비 현재 신앙 상태 (입대 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 믿는 병사, N=557, %)



군인교회 출석 병사, 한국교회 20대 성도 대비 '신앙 수준 높아'!

- 군인교회 출석 병사의 신앙 수준을 한국교회 20대 성도와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신앙 수준이 높은 3~4단계 비율이 '군인교회 출석 병사'(49%)가 '한국교회 20대 성도'(37%)보다 12%p 높게 나타났다.

[표] 군인교회 출석 병사와 한국교회 20대 성도의 신앙 수준 비교

신앙 단계*	군인교회 출석 병사	한국교회 20대 성도**
1단계	19%	26%
2단계	33%	37%
3단계	28%	26%
4단계	21%	11%
3~4단계 합계	**49%**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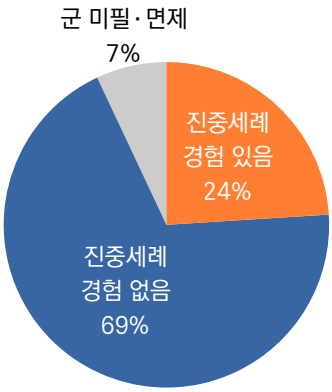
*신앙 단계는 윌로우크릭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의 REVEAL 조사에서 개발한 신앙 단계 모델로 현재의 신앙상태를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가 높을수록 신앙이 개인의 삶에서 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교회 20대 성도 조사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6』, 2025.09.(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5.05.15.~05.22.)

02 [진중세례와 전역 후 신앙]

한국 남성 4명 중 1명, 군 복무 중 기독교 세례 받았다!

- 대한민국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꼴인 24%가 군 복무 중 '진중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이는 군선교 현장이 남성 청년층에게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그림] 한국 남성의 진중세례 경험* (만 19세 이상 남성, N=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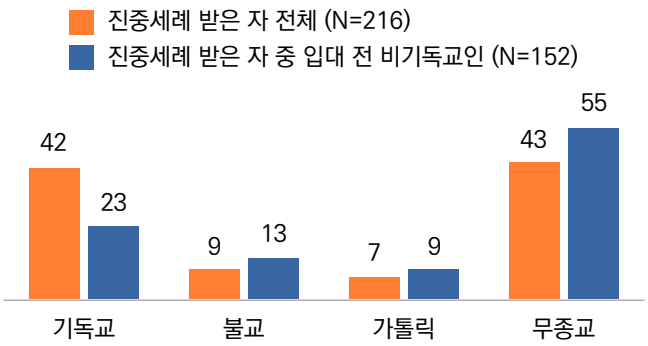


*출처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 세례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 2026.02.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남성 493명, 온라인 조사, 2026.01.05.~01.10.)

진중세례 받은 전역자 10명 중 4명(42%), '현재도 기독교 신앙 유지'!

- 진중세례를 받은 전역자 10명 중 4명(42%)은 현재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
- 특히 입대 전 비기독교인이었다가 진중세례를 받은 응답자 중에서도 23%가 현재까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중세례가 청년 장병의 첫 신앙 입문과 장기적 신앙 정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진중세례 받은 전역자의 현재 종교 (전역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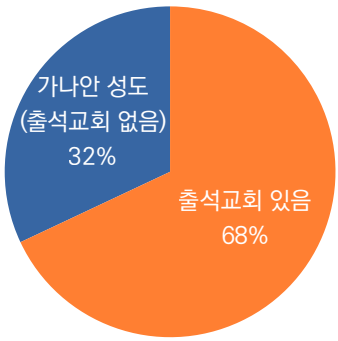


Note) 전체 기독교인 비율에는 입대 전부터 기독교인이었던 응답자도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

기독교인 전역자 32%, 신앙 유지하나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

- 현재 기독교인인 전역자 중 '출석교회가 있다'는 응답은 68%, '출석교회가 없다'는 32%로 3명 중 1명은 전역 후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 출석은 중단한 가나안 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군선교가 병사들의 세례와 신앙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전역 후 교회 생활로 이어지는 데까지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현재 기독교인인 전역자의 교회 출석 여부
(현재 기독교인 전역자, N=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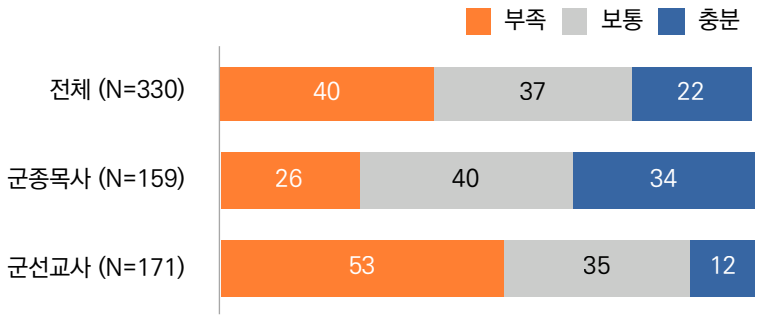


03 [군선교 현장의 위기]

군종목사교회보다 군선교사교회가 재정 상황 훨씬 열악!

- 군인교회의 전반적 재정 상황을 살펴본 결과, 10곳 중 4곳(40%)이 현재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 특히 군선교사 시무교회(53%)는 군종목사 시무교회(26%)보다 재정 부족 비율이 2배 이상 높아, 재정적 취약성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시무교회 전반적인 재정 상황* (군종목사·군선교사, N=3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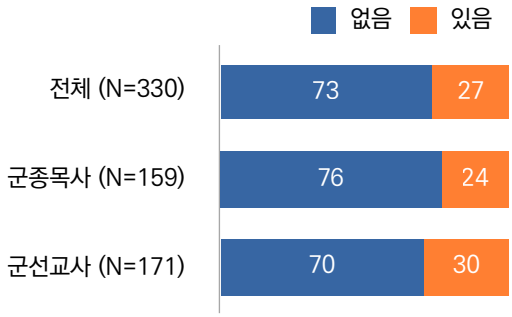


*5점 척도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군인교회 목회자 4명 중 1명 이상, 사역 중단 고민 경험 있다!

- 군인교회 목회자 4명 중 1명 이상(27%)은 군선교 사역 중단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역 중단을 고민한 주요 이유는 군종목사와 군선교사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군종목사는 과도한 업무 부담(42%)과 사역의 불연속성 문제(40%)를, 군선교사는 사역 지원 부족(42%)과 경제적 어려움(31%)을 각각 1,2순위로 꼽았다.

[그림] 군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 유무* (군종목사·군선교사, %)



*4점 척도

[표] 군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군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사역자, 1+2순위, 상위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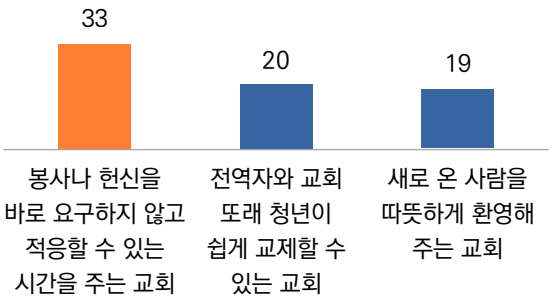
	전체	군종목사	군선교사
사역에 대한 인정과 지원 부족	37%	29%	42%
잦은 병사·교인 이동으로 사역의 열매를 맺기 어려움	33%	40%	29%
과도한 사역 업무와 책임	21%	42%	6%
일반 교회 목회나 다른 사역 희망	21%	32%	14%
경제적인 어려움	18%	0%	31%

04 [군선교의 과제: 지역교회와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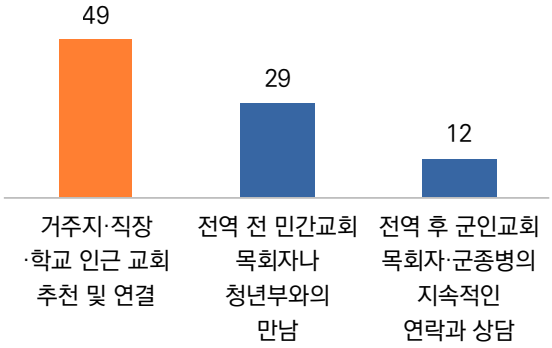
소속교회 없는 전역자 위해, '군인교회의 거주지/직장 인근교회 연결' 필요!

- 군인교회에 출석한 전역자는 교회 정착에 필요한 교회 모습으로 '헌신 요구 전 적응 시간 제공'(33%)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또래 청년과의 교제'(20%), '따뜻한 환영'(19%)이 뒤를 이었다.
- 반면 사역자들은 전역 후 신앙 유지를 위한 최우선 지원책으로 절반가량이 '거주지·직장·학교 인근 교회 추천 및 연결'(49%)을 꼽았다.
- 전역 후 신앙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의 마음을 얻는 교회의 수용 태도(충분한 적응 배려, 또래 간 교제 마련)와 실질적 지역교회 연결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전역자의 교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교회의 모습
(군인교회 출석한 전역자, N=500. 상위 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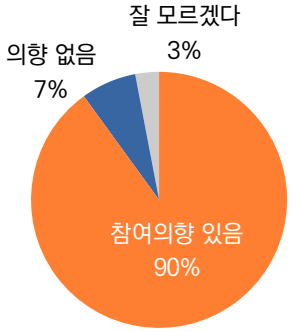
[그림] 전역 후 신앙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
(군종목사·군선교사, N=330, 상위 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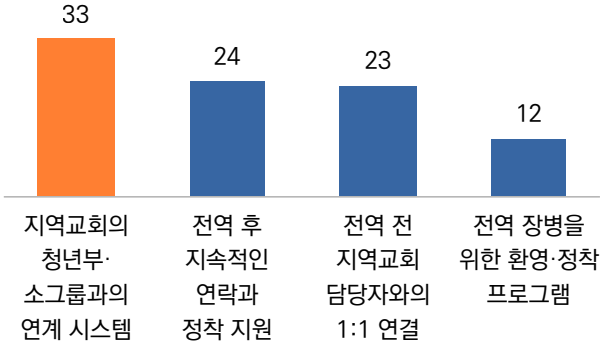
담임목사 90%, '전역자 결연교회 제도 참여 의향 있다'!

- 민간교회 거의 모든 담임목사인 90%가 거주지·학교·직장 인근 교회와 전역자를 잇는 '전역자 결연교회 제도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 구체적인 지역교회 연결 방안으로는 '청년부·소그룹 연계 시스템 구축'(33%)을 가장 높게 꼽았고, '전역 후 지속적인 연락과 정착 지원'(24%), '전역 전 지역교회 담당자와의 1:1 연결'(23%) 순이었다.
- 이는 목회자들이 군선교 연계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일회성 소개를 넘어 청년부 소그룹 연계 등 구체적 정착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전역자 결연교회 제도 참여 의향
(담임목사, N=500)



[그림] 전역자의 지역교회 연결 방안 (담임목사, N=500, 상위 4개, %)



Note) 전역자 결연교회 제도 : 크리스천 전역자들을 군선교 차원에서 그들의 거주지, 학교, 직장 주변에 있는 교회와 연결시켜 주는 제도

넘버즈 인사이트

이번호 요약

1. 한국 남성 4명 중 1명, 군 복무 중 기독교 세례 받았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 4명 중 1명꼴인 24%가 군 복무 중 '진중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진중세례 받은 전역자 10명 중 4명(42%), '현재도 기독교 신앙 유지'!

진중세례를 받은 전역자 10명 중 4명(42%)은 현재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

3. 민간교회 담임목사 90%, '전역자 결연교회 제도 참여 의향 있다'!

민간교회 담임목사의 90%가 거주지·학교·직장 인근 교회와 전역자를 잇는 '전역자 결연교회 제도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크리스천 청년들의 군대 톡톡 (주종화·이은성 저, 생명의말씀사)

관련 성경 구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장 1절)

목회 적용점

이번 군선교 실태 조사 결과는 군대가 대한민국 남성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깊게 다지는 매우 강력하고 특수한 선교 현장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 성인 남성 4명 중 1명(24%)이 군 복무 중 진중세례를 받았고, 진중세례 전역자의 42%가 사회에 나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전역 기독교인의 32%는 출석 교회를 찾지 않는 '가나안 성도'로 나타나, 군선교의 성과가 민간교회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단절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목회적 실천에 힘써야 한다.

첫째, 진중세례 이후의 체계적인 신앙 양육 시스템 구축이다.
군 복무 중 세례를 받은 청년들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군인교회 내에서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소그룹 양육을 통해 견고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 양육 프로그램이 상시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역자 결연교회 제도의 적극적 활성화와 연계 확대로 이탈 방지이다.
민간교회 담임목사 10명 중 9명(90%)이 전역자 결연교회 제도의 참여 의향을 밝힌 만큼, 군인교회와 지역 민간교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전역 전 거주지·학교 인근의 지역교회와 장병들을 1:1로 미리 연결하고, 청년부의 따뜻한 환대와 소그룹 연계를 통해 이들을 품을 때, 비로소 군선교의 열매는 한국교회의 지속 가능한 부흥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1. 고령층 개인파산 실태



2. 요즘 신혼여행 트렌드



[넘버즈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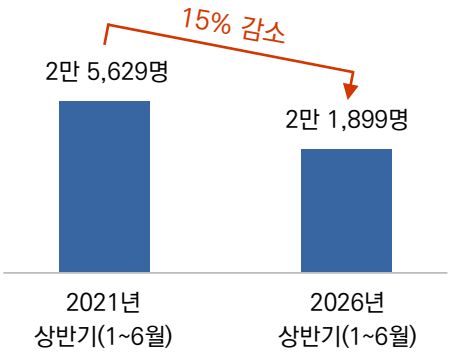
도박판이 된 일상, 우리는 왜 박수를 치는가

[고령층 개인파산 실태]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 5년 전 대비 15% 감소!

- 대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현황 자료(박대출 의원실)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가계의 생계와 체감 경기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 코로나19 여파로 파산이 급증했던 2021년 상반기(2만 5,629명) 대비 올해 상반기(2만 1,899명)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개인파산 신청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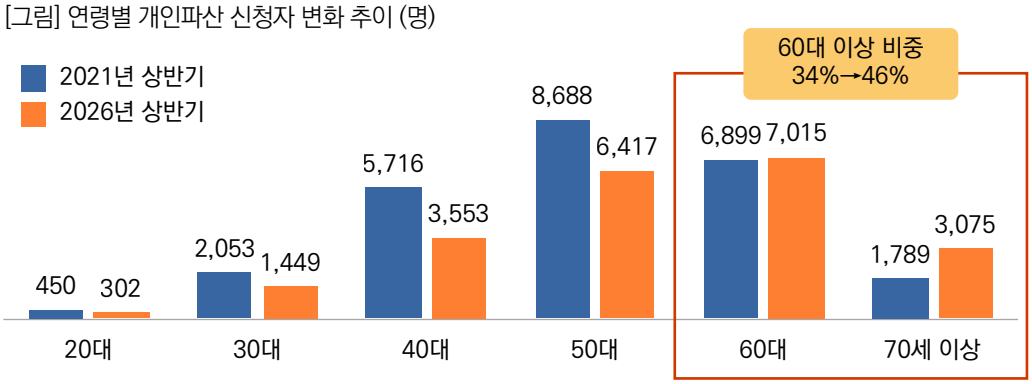


※출처 : 조선일보, 사업 실패했는데 병원비까지… 빚더미 내몰린 고령층, 2026.09.29.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9/29/YZHUM6YSXVBKLH6777RVVRAKDI/)

개인파산 가장 많이 신청한 나이 60대…70세 이상은 5년 새 72% 급증!

- 전체 파산 신청은 줄었으나 고령층 파산은 오히려 급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파산 신청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5년 전 50대에서 올해 60대(7,015명)로 이동했다.
- 전체 파산 신청자 중 60대 이상 비중은 5년 전 34%에서 올해 46%로 12%p나 높아졌다. 특히 70세 이상은 5년 전 1,789명에서 3,075명으로 72% 급증해 고령층의 생계 및 재정적 위기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그림] 연령별 개인파산 신청자 변화 추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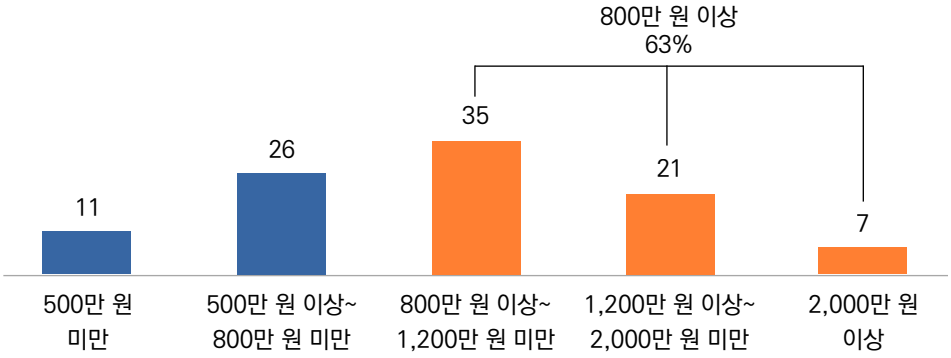


※출처 : 조선일보, 사업 실패했는데 병원비까지… 빚더미 내몰린 고령층, 2026.09.29.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9/29/YZHUM6YSXVBKLH6777RVVRAKDI/)
Note) 연령별 수치는 연령 확인된 신청자 기준으로 전체 신청자 수 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

요즘 신혼여행 예산, 3명 중 2명은 '800만 원 이상' 책정!

- 요즘 예비·신혼부부들은 신혼여행에 얼마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을까? 예비·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부킹닷컴), 신혼여행 경비로 '800만 원 이상'을 책정한 비율이 3명 중 2명 가까이(63%)에 달했다.
- 구간별로는 '800만 원 이상~1,200만 원 미만'이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5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26%), '1,200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21%)이 뒤를 이었다.

[그림] 신혼여행 총예산* (부부 총합, 예비·신혼부부,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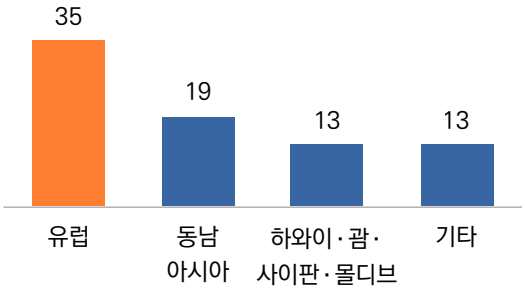


※출처 : 뉴스1, 요즘 허니문 명세서 '800만원' 기본…유럽·체험·숙소·미식에 안 아낀다, 2026.10.28. (https://www.news1.kr/industry/hotel-tourism/6333029)
*항공, 숙소, 식사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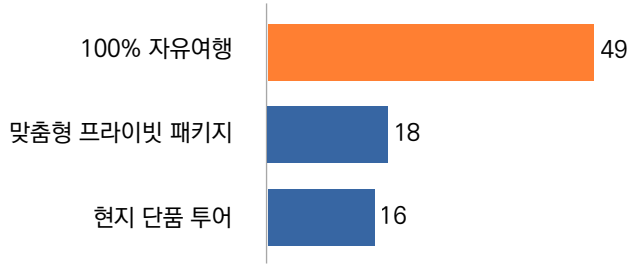
예비·신혼부부 절반, '100% 자유여행' 선호!

- 가장 선호하는 신혼여행지로는 '유럽'(35%)이 1위로 꼽혔으며, 이어 '동남아시아'(19%), '하와이·괌·사이판·몰디브'(13%) 순이었다.
- 계획 중인 여행 방식으로는 정형화된 패키지 대신 부부의 취향을 반영한 '100% 자유여행'(49%)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그림] 신혼여행지 선호도 (예비·신혼부부, N=1,000, %)



[그림] 계획한 여행 방식 (예비·신혼부부, N=1,000, 상위 3개, %)



※출처 : 뉴스1, 요즘 허니문 명세서 '800만원' 기본…유럽·체험·숙소·미식에 안 아낀다, 2026.10.28. (https://www.news1.kr/industry/hotel-tourism/6333029)

도박판이 된 일상, 우리는 왜 박수를 치는가
: 카지노화되는 일상과 청년 세대의 욕망

조현섭 교수
(총신대학교 중독상담학과, 한국중독융합학회장)

들어가며: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베팅하는가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밤사이 주식 계좌의 붉고 푸른 숫자를 확인하고 점심에는 쇼핑 앱에서 쿠폰을 뽑아 물건을 할인받아 산다. 퇴근 후에는 방송을 보며 승부예측에 참여하고 게임에서 뽑기 상자를 연다. 자기 전에는 코인 거래소를 확인한다. 돈을 불릴 때도, 쉴 때도, 물건을 살 때도 우리는 무언가의 결과를 기다리며 그 결과에 따라 기분이 급변하고, 멈추어야 할 때도 손은 다시 화면을 켠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 우리를 붙잡는 화면은 주식과 코인이다. 국내 증시가 문을 닫아도 금융 앱에서 곧바로 해외 주식을 사고팔 수 있고 코인 선물 시장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이다. 올해 6월 18일 코스피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사상 처음 9,000선을 넘어 9,063으로 마감했을 때, 우리 주변에는 누가 얼마를 벌었다는 소식과 함께 나만 뒤처져 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이 퍼졌다. 그 결과 빚을 내 주식을 사는 규모는 큰 폭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코스피는 한 달여 만에 5,500선까지 급락했고, 빚을 낸 투자는 주가가 떨어질 때 손실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빚을 내 주식을 산 청년들은 큰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식을 사게 하는 장치는 이미 일상 곳곳에 있다. 불확실한 보상, 즉각적인 피드백, 언제든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 같은 카지노의 원리가 금융과 게임, 쇼핑의 운영 방식으로 확장된 것이다. 불확실한 보상에 대한 기대를 자극해 반복 참여를 유도하는 이 작동 방식이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카지노화되는 일상(casinofication)'이라고 한다.

사실 이러한 현상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수잔 스트레인지는 이미 1986년 자신의 저서 '카지노 자본주의'에서 현대 금융시장을 카지노 같다고 평가하였다. 문제는 이 원리가 더 이상 금융시장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고, 투자자만이 아니라 게임을 하고 물건을 사는 일상까지 카지노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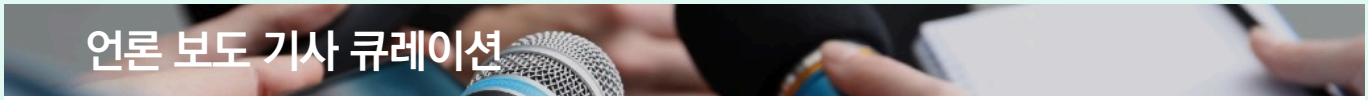
하지만 스마트폰이 있다고 모두가 베팅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다시 화면을 여는지 살펴보려면 사회적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빠르고 높은 수익이 성공의 척도가 되는 문화와 노동만으로는 삶을 바꾸기 어렵다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건은 특히 청년들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일확천금의 기회는 유일한 출구처럼 보인다. 돈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에 기회를 놓치면 도태된다는 불안까지 더해진다. 청년이 이 판에 계속 뛰어드는 이유는 개인의 선택에 앞서 사회가 만든 구조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물어야 한다. 이 판을 깐 것은 누구인가.

일상을 삼킨 카지노: 손가락 끝에 깔린 판

주식창에서 배달 앱까지: 손가락 끝의 카지노

자산을 불리려고 화면을 켜자마자 축하를 받는다. 미국의 주식거래 앱 로빈후드는 거래를 축하하는 화려한 연출로 돈을 땄다는 성취의 신호를 보냈다. 돈을 관리하는 화면이 거래를 마치는 즐거움까지 제공한다. 방송을 시청하는 시간에도 자기 몫을 걸고 결과를 기다리는 즐거움이 더해진다. 네이버의 치지직에서는 시청하며 모은 포인트 '통나무 파워'를 원하는 결과에 베팅한다. 예측이 맞으면 분배율에 따라 포인트를 더 받고 틀리면 건 포인트를 잃는다. 방송의 승패는 시청자 자신의 승패가 된다.(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연결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81호 (2026년 11월 1주)
- 기관별 신뢰 여부, 국정감사 평가, 활약한 국회의원

사회 일반

저출생 충격 현실로…초등 입학생 사상 처음 30만명 미달한다
연합뉴스_2026.11.8.

작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자 2만6천명…전년보다 6.9% 증가
연합뉴스_2026.11.5.

작년 혼인 부부 100쌍 중 9쌍은 다문화…출생아 비중은 5.2%
연합뉴스_2026.11.5.

중국·홍콩 대학이 '톱5' 싹쓸이… 한국은 올해도 10위 내 못들어
조선일보_2026.11.4.

법원 신뢰도 41%…공수처 24%·중수청 29%·경찰청 29%[한국갤럽]
연합뉴스_2026.11.6.

전세가 사라졌다…서울 아파트 임대차 절반이 '반전세'
국민일보_2026.11.5.

아동 • 청소년 • 청년

"지역 청소년 행위중독…스마트폰 과의존 7.9%·게임 5.4%"
연합뉴스_2026.11.5.

직업계고 취업률 4년만에 반등…300인이상 기업 취업비중 5년째↑
연합뉴스_2026.11.5.

"이효리도 2년 동거했다는데"…개방적인 Z세대 '놀라운 반응' [유지희의 미혼앤기혼]
한국경제_2026.11.5.

경제 • 기업

"올해 환갑인데, 회사 10년 더 다닙니다"…60세 이상 상용근로자 '쑥'
매일경제_2026.11.8.

구직자 60% "연봉 좋아도 면접 불쾌하면 입사 포기" [고용 인사이드]
동아일보_2026.11.2.

국제

AI 의료 활용 개방적인 미국인들…"최종 판단은 의사가"
연합뉴스_2026.10.30.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트렌드

[소셜+] "애를 가져가?" 부모들 갸웃…초등생 휩쓴 'L 챌린지'
연합뉴스_2026.11.5.

기획기사 : [10대 마약의덫], 연합뉴스

① 흡연보다 흔해졌다…"친구 1명이 10명 중독" _2026.9.14.

② "돈 없어? 10개 팔면 2개 줄게"…드라퍼 된 아이들 _2026.9.14.

③ 치료할 곳도 없다…폭행 겪는 의료진은 '번아웃' _2026.9.21.

④ '수면시간' 전락한 예방교육…"공포교육으론 한계" _2026.9.21.

⑤ 성인 됐다고 예방도 끝?…20대 마약사범, 10대의 10배 _2026.10.31.

기획기사 : [처방 마약류에 중독된 대한민국], 국민일보

“괜찮아요, 의사가 준 약이에요” ‘처방 마약류’에 취한 대한민국 _2026.10.26.

강남 ‘다이어트약 성지’에선…“손 떨려도 버티세요” _2026.10.27.

10대 공부, 20대 취업, 30대 경쟁…‘약물 중독’ 대한민국 _2026.10.28.

중독성 약물 처방 줄이려면… 의사와 환자 ‘공동 책임’ 가져야 _2026.11.1.

기획기사 : [인구오너스, 위기에서 기회로], 한겨레

법정 정년 넘긴 ‘6074’…“나는 노인 아냐” “사회참여 기회 더 줘야” 응답 76% _2026.10.27.

‘녹색멘토’와 ‘디딤돌 선배시민’…“누군가 돕는 주체로 삶의 의미 되찾아” _2026.11.4.

맞벌이 자녀 살피고 텃밭 일궈 김치나눔…노인들, 마을돌봄 ‘주역’ _2026.11.9.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윤성훈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교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읍, 크리스챤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PayP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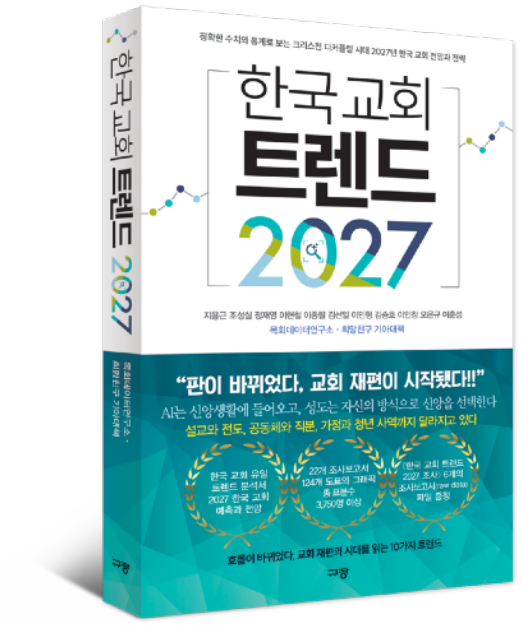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팀장

「한국교회 트렌드 2027」 책 구입 안내



1. 프롬프트 크리스천
2. 노 타이틀 성도
3. DIY 신앙
4. 아날로그 영성
5. 리얼리즘 설교
6. 전도 리포메이션
7. 느슨한 공동체
8. 대 은퇴 시대
9. 두 번째 가정
10. 고밀도 청년 사역

「한국교회 트렌드 2027」 책 구입 안내

이번에 새롭게 펴낸 「한국교회 트렌드 2027」은 저희 연구소와 기아대책이 뜻을 모아 준비한 「한국교회 트렌드」 시리즈의 다섯 번째 책입니다. 이번 책도 담임목사, 일반 성도 등 한국교회의 다채로운 현장을 담은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필되었고, 각 분야 전문가 10명이 집필에 참여하여,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10가지 주제(트렌드)를 엄선해 담았습니다.

책 구입 안내 | 책 소개 영상



목회데이터연구소 공지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리더 온라인 양성 과정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리더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1) 일정 : 2026년 11월 16일(월) 19:00~21:50
2) 대상 : 소그룹 리빌딩을 원하시는 목회자님, 기관의 리더님
3) 강사 : 우명훈 소장(세바시연사 코치)
4) 장소 : Zoom(신청자에 한해 링크 발송)
5) 참가비 : 3만 5천원 (구독 교회는 2만원)
6) 신청/문의 : 1533-7104(문자가능)

신청 링크



라잇나우미디어 11월 웨비나

라잇나우미디어에서 11월 [데이터로 읽는 목회 트렌드, AI로 설계하는 사역 실무 전략 웨비나]에 목회자님을 초청합니다.

1) 일정 : 2026년 11월 26일(월) 14:00~16:50
2) 강사 : 주경호 목사(PastoNexus 대표, 더바이블무브먼트 교육국장)
   지용근 대표(목회데이터연구소)
3) 장소 : Zoom(신청자에 한해 링크 발송)
4) 참가비 : 무료
5) 신청/문의 : 1533-7104(문자가능)

신청 링크

Addr.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기독교TV멀티미디어센터 9층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